

칼럼

장기채 주필



장바구니 속의 한숨소리

지금 민생이 소리 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자고 일어나면 동네 음식점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미 오래다. 의식비를 아예 없애고 장바구니 값을 줄이고 또 줄이고 아예 아예 줄일 곳이 없다. 그렇게 자고나면 물가가 된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도화선으로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고충도 이만 저만 아니다. 특히 외식·식음업계가 잇달아 가격을 올린다. 그렇게 자고나면 물가가 된다. 그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민생이 소리 없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식음·외식업계를 필두로 가격인상 흐름이 계속돼왔다. 햄버거와 김밥, 설렁탕 등 패스트푸드와 외식부터 즉석밥, 냉동만두, 어묵, 요구르트, 풀라, 생수에 이어 과자, 사탕까지 물가 전

반이 오르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자영업 분야인 한식 식당 100개 가운데 56개꼴로 창업 2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래방, 김밥·분식집, 치킨가게 등 여타 자영업 부문에서도 과열 경쟁 탓에 창업 초기에 폐업하는 사례가 줄을 선다. 또한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목욕탕, 여관 등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자영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간 매출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한다. 임대료와 세금, 종업원월급,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과산일보직전에 처한 업체가 부지기수다. 기특이나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몰락'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종 사회통합지표에서 한국은 거의 전 분야 최하위권이다. 최근 10년간 국가 성장정책 이유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OECD국가 통계의 의미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의 30%를 넘는다. OECD 통계비교에 의하더라도 미국 등 타 국가의 2배 수준인 세

계최고의 자영업 비중이다. 이는 결코 자랑이 아니다. 한마디로 자영업의 공급 과잉시대를 일컫는다. 식당 절반이 3년 내 문을 닫는다. 지금 이 나라는 경쟁을 일한 퇴직금을 자영업에 털어 넣고 마지막에는 카드빚까지 쓰다 급기야는 신용불량자로 몰락해 노숙자로 전락하는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다. 분명한 것은 이 정부 들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경제정책의 혼선일 것이다. 인류역사는 '물가폭등'을 견디는 정권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가격규제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유신정권은 1975년 '물가인정법'이란 걸 만들었다. 쌀·보리쌀·연탄·비료가격의 통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요금까지 규제하는 강력한 물가단속법이었다. 지금 체감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간다.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아진 주된 이유는 물론 불황

이다. 대기업들이 장기 불황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도 가격인상 흐름이 쉽사리 멈추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배달료를 따로 받기로 한 만큼 다른 치킨 업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치킨 업체는 그간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인 탓에 누구도 가격 인상에 앞장서려 하지 않은채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이제 빚정이 풀린 만큼 앞다투어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극장가 역시 업계 선두인 CGV가 관람료를 인상한 만큼 나머지 극장 체인들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가격 인상은 다른 분야로 도미노처럼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지금으로선 경기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장바구니속의 '한숨' 소리를 가슴깊이 새겨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다.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필코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물가폭등' 견디는 정권은 없다고 했다.

社說

선거 사법 엄단해야 한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fake news)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선거사법 수사를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거짓말·금품선거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줄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개입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유통자 추적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며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기고

박현식 완도군 부군수



완도 보길·노화 7개월 제한급수 교환

윤선도와 전복의 고장 완도군 보길·노화 주민 8천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최장 2일급수 10일단수라는 최악의 물 사용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도 지난 3월에 효자 같은 봄비가 내려 정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급일 충도라는 섬 지역은 여전히 차량에 물을 실어 여객선 운반을 통해 정수장에 물을 공급중이다. 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생수를 보내주시는 완도군 제경향우회 등 각계각층의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이번 제한급수를 시행하면서 몇 가지 교환을 얻었다. 첫째, 단일 수원지 의존을 탈피하고 추가 수원지를 확보해야 한다.

보길면과 노화읍 주민 8천여명은 보길면에 위치한 부황 수원지에서 모든 물을 공급받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유명관광지로 펜션과 민박, 식당 등에서 물 사용이 집중되어 있고, 보길 지역의 애까지 못한 가뭄은 양 읍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존 수원지 이외에 제2수원지 축조 검토 및 지하수담 건설을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빗물을 재활용하는 빗물 저장시설도 검토 중에 있다. 둘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 재정비이다. 기존 저수를 20%대에 제한급수 등을 취하는 대응 매뉴얼을 40%대로 상향시키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율이 40%정도일 때

부터 보조취수원 가동, 제한급수 시행 등 단계별 매뉴얼을 강화해 장기가뭄 및 최악상황에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다. 식당, 펜션, 민박집 등 상가운영 주민들과 일반가정집 주민들의 제한급수 인식은 상당히 다르며, 지하수와 농업용저수지 물 사용도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기가뭄 발생시 농업 저수지 사용량 고지, 지하수 관정 운영 상황 보고 등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상시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중앙정부, 전남도, 완도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상시 협조 체계 구축이다.

섬 지역은 별도 수원지 확보가 어렵고 육지부와 해저관로 연결도 쉽지 않다. 가능하다고 하여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섬지역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중앙 정부와 관계기관 등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식수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보길도와 노화도는 아름다운 자연공공과 윤선도 숲길을 간직해 소중한 곳이며, 단백집 보고인 전복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공급하는 식량 자원의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특히, 보길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우리들이 대대로 간직하고 보존해야할 소중한 곳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과 전국민이 사랑하는 소중한 곳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물 공급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보길·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라는 인식을 버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함께 머리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詩讚羔羊  
시 찬  
기릴 찬  
새끼양 고  
양 양

▷ 뜻 : '시전(詩傳) 고양편(羔羊編)에 문왕(文王)의 덕(德)을 입은 남국(南國) 대부(大夫)의 정직(正直)함을 칭찬(稱讚)하였으니 사람의 선악(善惡)을 말한 것이다.'

湖南新聞  
대외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흥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